

# 임실형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 군, 전담팀 본격 출범... 27일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선제 대응

임실군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5일 남원의료원과 임실시니어클럽, 지역자활센터 등 3개 기관과 서비스 제공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심 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앞서, 군은 올해 1월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임실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고령화 심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

그동안 기관과 사업별로 분절 운영되던 서비스로 인해 발생했던 지원 공백과 중복문제를 해소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대상자 발굴 및 통합관점 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조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돌봄체계 구현을 핵심으로 한다.

군은 법 시행 취지에 맞춰 기존 부서별로 운영되던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고, 수요자 중심

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신설된 통합돌봄팀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지역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군 보건의료원 재택의료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 서비스 연계 기관 등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췄다.

앞으로 전담팀은 대상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돌봄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으로 △일상돌봄 △주거환경 개선 △요양·복지 서비스연계 등 통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돌봄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계획의 적정성과 지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임실=전충영 기자

## 순창군의회,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5일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 과정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노선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송전선로 노선이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만으로 결정됐다"며 "이로 인해 순창군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



동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노선 결정 과정 전면 재검토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포함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재추진 △순창군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이성호 남원부시장, 현장 소통

남원시는 이성호 부시장이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역동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 부시장의 이번 현장 방문은 전북 대 남원클로컬캡스 등 32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순창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운영 협약

순창군이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금융기관을 확대 운용한다.

군은 지난 4일 먼저 순창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계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양영수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영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와 지역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 금고은행만 가능했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범위를 지역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보조사업자의 계좌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 내 기관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보조사업자들은 농협은행, 전북은행 뿐 아니라 지역 새마을금고까지 전용계좌 및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접근성과 편의성이 훨씬 커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4일 전북 동부권 최초로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 '다온' 현장을 방문해 임실 산모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소통 나서

### 최경식 남원시장, '다온' 방문해 산모들과 의견 나누

남원시는 전북 동부권 최초로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 '다온'이 지난 1월 첫 산모 입실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4일 현장을 방문해 임실 산모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 시장의 이번 소통의 시간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산모들의 생생한 후기를 직접 듣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 최 시장은 산후조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하고, 생활 중 느낀 불편함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산모들은 쾌적한 시설 환경과 의료기관 연계 체계, 직원들의 세심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시는 이날 건립된 생활 편의시설 보강과 프로그램 다양화 등 실질적인 의견들을 향후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모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춘향골 햇감자' 출하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출하가 시작된 춘향골 햇감자는 주산지인 남원시 금지면을 비롯해 송동면과 수지면 일대에서 생산되고 있다. 수확된 감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센터)의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 등 전국 각지로 공급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기후조건이 좋아 하우스 한 동당 평균 100상자(20kg 기준) 내외를 수확하고 있으며, 거래 가격은 최상품 기준 상자당 7만 원 이상, 평균 6만 5천 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상자당 5~6천 원 높은 수준으로, 향후 8만 원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가을에 수확해 보관하는 저장감자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높은 값을 받는 이유는 우수한 품질에 있다.

주 재배자인 금지면 일대는 퇴적 평야지의 미사 토양으로 배수가 잘돼 감자 생육에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농민들의 숙련된 재배 기술이 더해져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자의 차별화도 한몫, 남원농업기술



센터와 씨감자영농조합이 지리산권(운봉, 인월, 아영)에서 생산한 보급종 씨감자는 일반 강원도산 등에 비해 휴면기간이 짧다. 덕분에 겨울철 시설 재배에 알맞아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60여 농가, 200동 이상의 하우스에서 감자를 재배해 약 15억 원의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농가들은 4월 중순까지 감자 수확을 마무리하고 후속 작물로 수박이나 멜론을 재배해 연중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다.

김연주 센터 소장은 "올해 시설감자의 성공적인 출하를 시작으로 원예작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남원 농산물들이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산림조합,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기술 교육

임실군산림조합(조합장 정희석)은 지난 4일, 임실군산림조합 임산물판매센터에서 조합원 및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단기소득임산물 재배기술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의 핵심 공익 사업인 '산림경영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매일 추진되는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를 기념해 마련되었다. 산림경영지도 사업은 전문 지도원이 임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술을 보급하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임업인의 자립을 돕는 밀착형 지원 체계다.

이번 교육은 임업 소득의 대표적 품목인 두릅·팥은감·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초기 투자 대비 수익 회수가 빠르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목들을 선정하여, 참석한 80여명의 임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전충영 기자

### 남원시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최근 B형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단체생활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6년 8주차(2.15.~2.21.)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44.2명으로 전주(45.9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당분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수두,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학령기 소아·청소년은 국가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속히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